

산도리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공지	16

■ 성령강림절 첫째 주일/2016년 5월 15일

'산도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가교회가 성령강림절기 예배의 폐회 송으로 부르는 ‘이 기쁜 소식을’은 ‘성령이 오셨네’를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경우는, 아마도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래의 영어 가사의 후렴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the Father’s promise given)’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기쁜 소식의 내용으로 한다.

이 찬송의 가사는 대개의 경우,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나는 이 가사의 앞부분의 내용들보다는 후렴에 강조를 두고 찬송한다. 즉,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느낌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이 바뀌는 것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예가교회는 후자에 집중한다.

전자의 경우는 매우 그럴 듯해 보이고, 심지어는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하겠지만, 그 희망에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그 희망

은 권력지향적인 자들, 곧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자기 뜻대로 바꾸는데 관심이 많은 이들에 의해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세상은 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공의 선과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전쟁과 살육과 억압과 착취를 일삼지 않았던가?

예가교회는 남을 바꾸는 것보다는 나를 바꾸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남이 아닌 나를 바꾸기를 희망



하며 기도한다. 예가교회는 주 기도를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내용의 전부로 삼고 기도한다. 주기도는 성령을 받는 기도이며, 주기도의 결과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이다. 즉, 사랑을 기뻐하고, 감

사하며 누리는 존재로 사는 ‘나’이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가 두셋 이상이 모여, 지난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를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창조주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되었다. 이 성령강림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누리자!



창세기	28:10 - 22
로마서	8:33 - 39
요한복음서	17:11 - 19

■ 오늘 낭독한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3대를 걸쳐 정착하여 살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신부감을 얻기 위해 하란을 향해 가다가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를 이어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이 곳은

현재의 이스라엘에서 인구 약 20만의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지역은, 우선은 그가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던 세겜이고, 그 다음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지냈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 가나안 땅 전체의 수도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 약 7년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세겜과 헤브론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구역이라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살았던 브엘세바인데, 이스라엘이 이곳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랄이라는 인접한 도시국가의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확보한 우물들 근처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시작한 브엘세바에서의 예배 전통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요구대로 신부감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800리, 그러니까 7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하루 안에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빠른 걸음으로 잠도 안자고 쉴새 없이 걸어도 가는데만 나흘은 걸리는 거리이니, 제법 먼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약 100리쯤 북쪽으로 올

라오다가, 휴식을 취했는데, 그 장면이 오늘 낭독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사다리’ 혹은 ‘야곱의 꿈’ 등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권 모두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그 장면에 대한 주석이나 연구도 가장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워낙 꿈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10년쯤 전에 예가교회에서 이영재 목사님과 함께 토라사경회를 했을 때에, 제가 챙겨둔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의 중앙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신명기 8-10장의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회고기와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10장은 만나 이야기에 대한 회고도 있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예배한 일과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회고도 있으며,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회고장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대한 회고는, 오늘 낭독한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과 대응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특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그 이야기의 중심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식의 기록된 말씀이나 특별한 계명을 주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야곱으로부터 적어도 500년은 지난 모세 때에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직접 새겼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에 관한 첫 보고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계명을 받았다고보다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많은 자손들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그가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우르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낯선 땅 가나안까지 갔으며, 평생을 나그네로 떠돌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믿고, 평생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과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땅과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분명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창세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그 중에서도 모세가 돌판에 새겼다는 계명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문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과 긴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계명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나라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통치하는, 강한 나라, 강한 제국, 그래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약속받은 나라를 지금도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벌일 전쟁을 통한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나라'라고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은 호전적인 메시아 개념은 많이 수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도 남에게 잘 퍼주었고, 나그네들도 잘 대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시작되어, 그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낭독한 창세기 28장 13-15절에서 야곱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내용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일단, 다윗의 나라나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인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에는 놀랍게도 단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한 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온 세상이 받을 복은 '사랑하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삶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요, 야곱의 이야기에 나온 비유처럼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믿고, 사랑을 소원하며,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를 향해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문자로 기록한 계약문서를 주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슴에 그 계약내용을 새겼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그의 심장에 새겨진 것입니다. 모세도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장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약의 말씀을 자기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예수님과 바울과 상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장에는 그 계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아닌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여러분이 새롭게 물려받을 가족과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직 하나님과 계약을 맺

여러분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믿고, 사랑을 소원하며,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를 향해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일입니다.



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을 잊고 사신 분들은 계약을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회는 많겠지만, 속히 여러분의 길을 정하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좀 던져 버리고, 얼굴도 밝게 펴고,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삽시다.

구약성경을 보면, 계약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까닭은, 계약들이 계속해서 파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아마도 계약갱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매주 가족모임으로 모여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일들은, 그 계약 안에 있는 계명과 약속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낭독한 요한복음이 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계명과 약속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교회로 살면서, 그 일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계약의 내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진입해 들

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여러분의 심장에 그 계약의 내용이 새겨져 있으면,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나그네로 사는 까닭은,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때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이 세상에 속하게 된 줄로 착각하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텐트를 걷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 지내고 있지만, 매일, 매 달, 그리고 해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한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모험의 내용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80세에 이집트의 노예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젊은이들이 주저 않아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노래와 춤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나를 새롭게 바꾸는 일을 나이가 많다고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늙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40세만 되도, 노안이 오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목표는 무병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까닭이, 그 삶이 고달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새로움을 누리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그만큼 활기찬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에게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늘 새로움을 누리며, 재미있고, 활기있게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재미있고, 활기있는 삶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울과 무기력 속에 늙어가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늙더라도 재미있고, 활기있게 늙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누리시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빕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희은 박용제: 카라님에게 쿨 토 시를 선물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희은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유랑님에게 빨아 쓰는 종이행주를 선물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유랑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섬김님 집에서의 첫 가족모임에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진주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진주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가족모임에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섬김 강수덕: 가족모임 장소와 식사준비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고래님에게 안부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새롬님에게 안부의 인사와 읽은 성경구절을 전하고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해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선물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달빛님에게 음식 선물을 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달빛님에게 안부 문자를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아모님에게 호두조림을 선물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모퉁이돌님에게 컵과 음료를 선물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에스더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어울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어울님에게 이메일과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일대일 만남 짝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찬미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찬미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좋은님에게 야채 스틱 도시락을 선물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빌립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빌립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광야님과 믿음의 사귀기로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신나님에게 밤샘 작업에 필요한 선물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불꽃님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불꽃님에게 면역을 높이는 차를 선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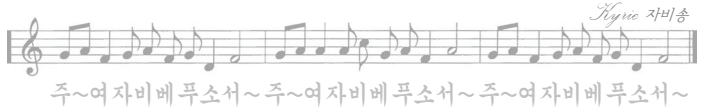
불꽃 김강진: 한가온님이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불꽃님이 직장에서 함께 먹을 간식을 선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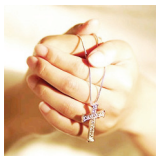
시원 박주현: 불꽃님이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 첫째 주



주~여자비베무소서~주~여자비베무소서~주~여자비베무소서~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4편 24-34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기만 할 것이다.

첫 기도

주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
소서. 남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옛 존재는 죽고, 나
의 생명을 주어 많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
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 성령
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마가복음서
1-2/3-4/5-6
7-8/9-10/11-12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
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
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
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
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
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
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
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
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



죽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 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4편 24-34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지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기만 할 것이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
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
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
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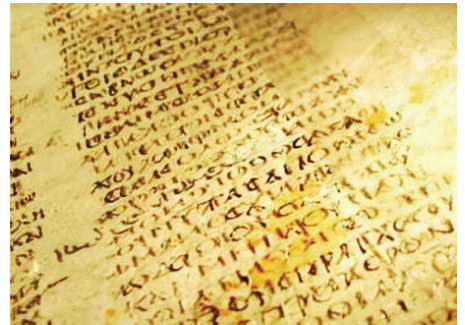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
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
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
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87 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49)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살전1:1)

한스 링은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현실적 교회와 교회의 성원들인 교인들의 삶이 갖는 불완전성과 오류를 지적하고, 연약함을 지적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직제들을 비판하며,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고도 선언한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상호의존과 신뢰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끊임없는 신앙실천을 통해서 회심을 증명하며, 일치된 믿음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한다. 한스 링의 글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글이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 안에는 현실교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잘 보듬어서, 그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살려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점에서 바울의 글보다 한스 링의 글은 상당히 세련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느낌을 준다.

바울은 한스 링에 비하면, 이상에 취해있

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물론, 바울도 몇 안되던 교회들이 세상에서 굳게 서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도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처럼 돌직구 스타일이다. 바울 시대에도 교회는 한스 링의 표현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했다. 바울은 거짓교사들과도 싸우고 있었고, 믿음 없이 분열하는 고린도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꾸짖으며 인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즐겨 사용하는 ‘현실’이라는 잣대로 교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와 교회들이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사실상 믿음과 희망에 근거한 것이며, 그들은 그 믿음과 희망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확인시켜주고, 튼튼하게 하는 매일의 식탁을 통한 사귀기가 있었다. 그 식탁이 예배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만찬예전이라는 예전적 형태만 남고, 나머지는 유실된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성만찬 예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식탁의 사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능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을 것이고, 교리와 교권을 중시하는 교회의 요구에 맞추어 변형되었을 것이다.

바울과 한스 링의 메시지가 차이가 있다

면, 그 까닭은 교회의 믿음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 식탁의 사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이후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확인하고, 살도록 해 준 그 식탁의 사귀가 없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원자화된 교인들을 추스려서, 교회를 세우는 짐을 안고 살게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식탁의 사귀에서 도망친 것처럼, 2-3세기의 교부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들은 점점 베드로를 따라 그 식탁에서 도망쳤다. 그 식탁은 분명히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귀를 갖는 식탁인데, 로마 가톨릭의 1대 교황인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도망친 이후로, 베드로의 뒤를 잇는 행렬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였던 식탁이 없이, 과연 교회는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교회로 살 수 있을까? 역시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권력의 질서를 만들었고, 교리라는 이념과 각종 규제의 법들을 생산하여, 교인들을 통제



하는 길로 간 것이다.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상 유혹과 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위해 연옥을 준비하는 정도이다. 그 연옥이라는 것도, 그나마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문제없이 잘 산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영역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교인들을 형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하지도 않는다. 교인들은 다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사제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들이다.

개신교는 만인사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신교의 교회들 역시 교권의 질서를 버린 것은 아니다. 개신교 목사 역시 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톨릭 사제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목사들이, 그것도 대형화된 교회 일수록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세우는 일을 꺼려한다. 잘 가르쳐봤자 목사의 권위와 교권에 도전하는 반항아들만 양산한다는 생각이다. 놀랍게도 잘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공부 모임이라는 것을 개설해 놓고도, 그 내용은 교리공부로 되어 있다.

이는 개신교의 어떤 교파이건 마찬가지이며, 흔히들 이단이라 불리는 쪽으로 갈수록 교리적 체계들이 강화되어 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수 천, 수 만의 교리 문답들이 만들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채택되었을 당시의 영국에는 6천 개가 넘는 교리문답들이 떠돌아 다니다고 했다고 할 정도이니, 그 후로도 수 백

년 간 얼마나 많은 교리서들이 쓰여지고, 그에 따라 교파와 교회들이 분열 내지는 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근거로 한 것만이 아니라, 소위 ‘성령의 임재를 통한 직통 계시’까지 등장하여,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 직통계시를 더한 새로운 교회론, 새로운 종말론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누가 어디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성경구절들을 꿰어 맞춘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꿰어 맞추어진 성경구절들은 해당 교리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해당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도 모르는 꼴이 된다.

고등학문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수 백, 수 천 번 읽었다는 사람도, 심지어는 공부 좀 했다는 목사들도, 어떤 성경공부 모임에 갔다가 특정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까닭이다. 교리에 의해 꿰어 맞추어진 성경구절들은 교리에 권위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며, 교리가 내적으로 무모순적인 것이면, 그 교리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것이 된다. 즉, 성경이 그 교리의 완전성을 입증해 준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리의 완전성을 인정한 꼴이 되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리적 체계만 잘 만들면 수 많은 교인들을 거느린 교주도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한다. 사실, ‘말씀의 종교’라는 선언은 유대교의 선언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선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이 직통계시나 복잡한 교리적 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울과 첫 교회들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집중한 것이며, 그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의 길을 간 것이다.

첫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매일 함께 한 식탁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구현한 식탁이다. 그들은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가슴에 새겼고,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자기의 삶으로 따라갔던 것이다. 여기에, 무슨 창조론이 필요하고, 종말론이 필요하고, 구원론이 필요하단 말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해 말할 것이라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 창생의 신화와 비밀을 논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말에 대해 말할 것이라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 마지막 날의 대재앙과 심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사랑하는 삶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구원도 죄짓김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나’가 ‘사랑하는 나’로 살게 되는 구원을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셨던가?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과 삶에 주목하고, 그 삶을 자기의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따라가려는 교회들은 거의 없다.

교회의 관심은 중세 이후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우주 창생의 비밀과 사후 세계, 현실 세계의 종말, 병나음과 귀신들림 및 재난에서 살아남는 일을 비롯한 불가해한 현상, 현재의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힘 등 기괴한 판타지에 빠져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쉽고 가벼운 짐인 것인데, 그 짐을 집어 던져 버리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꼴이다.

오늘날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교인들이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의 짐, 즉 '사랑하는 삶'을 지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다만 참고 견디면서 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은 언제 벗는가? 죽을 때에 벗는다는 것이다. 첫 교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렸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떠나,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과 첫 교회들이 받은 영과 같은 영을 받은 것이 맞는가? '성령'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이 과연 같은 영을 받은 것인가 말이다. 성경이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와 다른 교회로 살면서, 과연 같은 영을 받았으며,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기도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방언이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삶에 활력이 생겨서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병도 낫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과 첫 교회들이 받

은 성령과 같은 성령인가? 방언 터지고, 병 낫고, 기분 좋아지면 그게 성령인가 말이다. 방언 터지고, 병 낫고, 기분 좋아지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모든 종교의 모태란 말인가? 성령을 받으면 기독교도 될 수 있고, 불교도 될 수 있고, 샤머니즘이나 부두교도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첫 교회들이 교회로 사는 삶으로부터 떨어져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은 안다는 말인가? 내가 받은 영이, 지금의 교회들이 받은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입증해 주지도 않는데 말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복잡한 교리들과 세상의 도적적, 윤리적 교훈들을 따라 살고 있는데 말이다.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기획을 해서 만들다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다른 양념이나 재료를 추가하여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본래 기대했던 음식은 맛볼 수 없다. 본래의 음식을 맛보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료를 구입하고, 레시피를 확인하고, 조리과정을 점검하며 요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금 처음의 맛과는 다른 맛의 음식이 되어 버렸다. 본래 없던 재료들이 추가되었고, 레시피도 바뀌고, 조리 과정도 달라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달라져서,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맛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첫 교회들의 삶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경험해 보는 것이다. 교회는 마치 음식과 같아서 머리로 연구하고, 분석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 물론, 성경을 제외하고는 4세기 이전의 교회의 삶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구의 성과 역시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교회는 몸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하나의 지교회가 홀로 살아내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지교회들이 함께 하면 좀더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1세기의 로마제국의 드넓은 땅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4세기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 로마제국 곳곳에서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첫 교회들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다양한 교회로 살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무리하게 통일시키려 한 것이 나케아, 칼케돈 등의 에큐메니컬 종교회의들이다.

우리 시대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다양한 교회들이 바울의 때처럼 얼마든지 형제관계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바울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긴밀한 성경이 될 것이고, 교회가 지닌 본래의 맛에 접근하기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반한 교회들은 바울의 시대만 해도, 그리고 3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다양했다. 같은 말씀에 기반하여 살았는데도, 그 삶이 구현되는 방식들은 천차만별이었던 것이



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교회를 낳는 영이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의 외형을 똑같이 만드는 영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영이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다.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노인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자유인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노예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전쟁이 없어서 남자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전쟁이 잦아서 여자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것이다. 교회의 지체인 교인들이 가진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들과 삶의 상황들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발현되는 방식들이 곧 교회의 개성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은 다양했지만, 바울의 편지들과 같은 편지들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활동을 했던 것처럼, 넉넉한 교회는 궁핍한 교회들을 도왔을 것이다.

첫 교회들의 예큐메니칼은 교리논쟁과 권력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몸으로 살아서 깨닫고 누린 것으로 다른 교회를 격려하고, 경제적으로 돕는 일 등 구체적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교회, 그리고 중세 이전의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의 길을 배우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1세기의 교회들만 해도, 같은 성령을 받고도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졌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교회나 데살로니가교회나 빌립보교회와 동일한 삶의 외형을 가지고 살 까닭

은 없다. 외형적인 것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로마제국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1세기 사람들과 똑같은 옷과 음식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교회 이야기나 4세기 이전의 교회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은 아주 제한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그렇고 교회에 관한 것들은 무엇이든 몸으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접근할 길이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보다는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읽는 것이 훨씬 잘 입혀지는 책이다. 사실상, 성경을 머리로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보차원에 있는 것들 뿐이다. 성경에는 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지명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머리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희망은 내가 살아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예수님은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고 실천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읽으라고 하셨으니,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드림가족

예배실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소망님과 야사시에서 2주기 코이노니아벨리의 삶을 정리하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웠다, 감사표현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소망님이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커피상품권을 준비했다, 소망님이 보내준 문자에 답을 하며 사귄 수 있어 감사했다, 드림님에게 성경구절을 찾아 문자를 보내고 함께 사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를 나누는 문자를 보냈다, 드림님을 참 좋아하며 드림님과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선물로 직접 만든 정과, 마카롱, 과일, 버섯불고기를 선물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카롱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버섯불고기를 선물하지 못해서 아쉽다, 생일을 맞은 미리내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주일에 케익을 준비해 가족 모두와 축하해서 좋았다, 나물반찬을 미리 준비해 주일에 드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리내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다, 텃밭 가꾸기를 하기 전에 에스더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님의 밝은 모습이 참 좋았다, 주일 예배 후에 반가

운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와서 토요일에 하기로 한 일대일 만남을 잊은 것을 사과하는 반가운님의 카드를 읽고, 선물받은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며 반가운님과 드림가족으로 함께 사는 즐거움에 미소가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맛있는 갈비탕을 대접해준 사랑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다, 서포터즈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의 간식을 준비하겠다, 성가대 엠티를 즐겁게 다녀오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예배실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2주기 동안 신나님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다과용 포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포크를 종류별로 사서 선물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정성을 다해 가족모임 식사와 장소를 준비한 신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나님의 여름 티셔츠를 사서 선물하였다, 여름 원피스 사진을 보니 시원님이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뻐 것 같아 흐뭇한 마음으로 그 원피스를 사서 스타킹과 함께 선물하였다, 유유님에게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으로 졸업을 축

하하면서 해외에서도 늘 성령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에 감사하였으며,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시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프리마켓에 같이 가서 여름 스카프를 선물하였다, 빨강 체크 남방셔츠를 발견하고 기분 좋게 사서 시원님에게 선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진주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소망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좋은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씨앗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회의실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광야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시간을 맞추지 못해 집에 있는 마카다미아를 까서 알맹이만 예쁘게 포장했다, 그것만으로는 아쉬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마신다는 홍초를 구매해서 함께 전했다, 건강관리를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두통도 짧게 끝났다 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 말씀으로 2주기에 대한 감사와 3주기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광야님이 더욱 좋아졌다, 다음에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

겠다, 바다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렌지를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가족

상담실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여독이 덜 풀린 와중에도 가족과 함께 성찬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 가족들이 미리 고기와 김치도 주문하고 일찍 모여 신나게 청소를 하니, 함께 하는 기분이 좋았다, 주일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가족들에게 누가 된 것 같아 미안했다, 모임을 하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서 더 힘을 내어 즐거운 가족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했다, 늦지 않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간식 덕분에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모임에 오는 길이 더 즐거웠다, 새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겠다고 생각했다, 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씨앗님을 격려하고 좋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침착하고 차분한 성품과 타인을 배려하는 씨앗님이 새 직장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했다,



뿌리님과 회사 근처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어느 맛집에서 식사를 할지 즐거운 고민을 했다, 점심시간에 만남을 갖고 함께 식사하고 믿음의 삶을 준비했다, 성찬준비에 큰 도움을 준 뿌리님의 부모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가족

예배실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샘물님을 좋아하기 위하여 천상의 노래협곡에서 일대일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여 좋았다, 샘물님과 산책을 하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대일 만남을 했다, 비가 온 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귀의 시간이 즐겁고 좋았다, 온 유님을 좋아하여 감사한 내용을 편지로 적으며 골로새서의 내용을 나누고 선물을 하였다, 다음에는 서번트팀이 되어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하겠다, 늘빛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빛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독립군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일대일 만남을 준비했다, 교회 청소를 하기 전에 만남을 갖기로 약속을 하고 말쑥준비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독립군님이 핸드폰을 바꾼 기억이 나서 핸드폰 케이스와 체력에 좋은 동충하초 팩을 선물했다, 독립군님의 성장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 감사했다,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도 독립군님과 믿음의 삶을 나누고 살아온 삶을 공유하니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식가족

학생부실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즐거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계속 궁리하다가 신사용 양말을 준비해서 선물할 계획을 세웠다, 출근할 때 신을 수 있도록 여름용 양말을 구입해서 선물해 드렸다, 여름에도 즐거움님의 발이 뽕뽕송하기 기대하며 웃게 되어 즐거웠다, 가족을 사랑할 목표 실행으로 매일 아침 내 사랑 호흡기도와 말씀으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했다, 멀리 있어도 소식가족에서 맡은 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등대님을 위하여 호흡기도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두 번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등대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소원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며, 소식가족으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지로서의 삶을 생각했던 한 주였다, 마르다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르다님이 좋아할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동안 마르다님이 선물했던 복어, 김, 멸치 등을 반찬으로 만들어 도시락 반찬으로 갖고 다닐 수 있게 해서 선물했다, 좋은 반찬거리들을 선물한 마르다님에게 감사했고, 이 반찬들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도가족

예배실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달빛님을 좋아해서 미리 순서지에 따라 순서에 맞추어 준비하고 일대일 만남을 하였다, 달빛님을 생각하며 성경구절을 찾아 보고 나의 생활을 살피고 그것을 기록하여 달빛님을 만나니 좋았다, 카톡을 통해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았고 일대일 만남 자체가 즐거웠다, 해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고 선물하기를 목표로 정했다, 일대일 만남을 한 뒤 준비한 사과를 선물했다, 준비한 만남일지로 해님과 사귀는 시간이 좋아 해님과 더 친해진 느낌이 좋았다, 주중에 감사문자를 하며 해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 것도 좋았다, 보라님을





포도가족의 사킴 활동

포도가족 해 석재호



포도가족은 팀워크를 위해 엠터를 일찍 3월에 갔다. 청평으로 갔는데 옥수역에서 같이 모여서 출발하였다. 모퉁이돌님이 운전을 맡아서 가족들이 모두 한 차에 함께 가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숙소는 강가에 있는 콘도였는데 3월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적하고 편했다. 그리고 오갈 때 차도 막히지 않아 좋았다.

새롭님은 음료수와 음식을 준비하고, 달빛님은 초콜릿, 아모님은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준비하여 밤에 '피터팬'을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침, 저녁기도회를 준비하고, 마리아님과 보라님은 밤에 전을 부쳤다. 넓은 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포도가족을 사랑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침이 되니, 커다란 통 유리를 통해 햇

빛이 들어와서 눈이 저절로 떠졌다.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니 언 강물이 햇볕에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강물의 흐름을 보며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오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사킴이 깊어짐을 느꼈다.

백남준 기념 전시회에도 모두 같이 구경을 갔는데 70년대 물건들과 개인적으로는 유명인이 아니면 달리 생각했을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며, 가족들과 그 시절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혜화동 마르쉐 장터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야채와 음식 등을 맛보면서, 어떤 것들이 맛있었는지 이야기하며 즐거웠다. 점심 식사를 하고 혜화동 이화벽화마을 입구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겸 찻집에서 벽에 걸린 그림들과 맞은편으로 보이는 경치를 감상하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평안함을 주는 시간이었다.

사킴과 여가 행사로 가족들과의 만남은, 시간, 장소를 공유하고, 서로가 가진 재능,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는 사랑의 실천이 모여 포도가족모임을 더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무 하태용

맑은가족의 새로운 예비인도자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호감형의 환한 표정이 더욱 빛을 발하여 만나고 싶었던 나무님을 가산동 한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나무’라는 새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의미에 대해 물어보니, 예가교회에 뿌리내린 나무가 나뭇잎이 무성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해님과 달빛의 따스한 기운을 받아 사랑열매를 맺어 생명을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교우들과 함께 어울려 사랑하며 생명을 누리는 나무님의 이미지와 참 잘 어울렸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에너지 넘치는 맑은, 나무님의 찰떡궁합 호흡으로 맑은가족이 더욱 활기차 보이던데 예비인도자 되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나무: 보살핌을 받는 나무에서 사랑하는 나무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변화라기보다는 맑은가족의 변화입니다. 맑은님의 한 없는 사랑과 열정을 중심으로 맑은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자: 사랑으로 열매 맺은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나무: 바로 며칠 전에 독립군님과 일대일 만남에서 가족으로 살면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작성하고 믿음으로 전했는데 독립군님이 좋게 받아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귀는 갖게 되었고 독립군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맑은가족이 또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큽니다.

기자: 정기모임을 마치고 애프터 시간에 게임진행을 맡아 항상 즐겁게 모임을 마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 팁과 추천하고 싶은 게임을 알려 주세요.

나무: 첫째는 매주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거다’ 싶은 게임은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둘째는 가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멘트를 미리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1. 속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맞추기
2. 스펠링 퀴즈인 행오버
3. 지하철역이나 생선이름 등 빙고게임을 추천합니다.





예가 공지

1. 오늘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강림절기 동안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힘써서,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누립시다!

2.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목요일 밤 기도를 할 때에는 예배와 가족모임, 101반 등 교회의 활동들을 위한 청원을 포함하여 기도합니다.

3. 101반 37기는 현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101반 강의는 집회 후 자료실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주, 5월 20일(금)-21일(토)에는 주일식탁가족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중에 홈스테이 협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사랑의 식탁 때에는 홈스테이 팀별로 결과 발표를 듣겠습니다.

5.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나무, 맑은님입니다. 예배위원은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맑은가족이 대접합니다. 5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예레미야서 12장 ~예레미야서 16장
화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22장
수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8장
목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33장
금	예레미야서 34장 ~예레미야서 40장
토	예레미야서 41장 ~예레미야서 47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